



총 실

950. “승리하는 사람에게 나는 주겠다.”(묵시 2,17)
매일, 매 순간 승리해 나가는 데 비결이 있습니다. 일
상의 작은 사건과, 나날의 걱정과 수고와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십시오. 그리고 그대와 함께 사막을 걷
고 있는 이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승리하기 위해 그대 영혼을 빛과 기쁨, 사랑
과 행복. 낙천주의로 가득 채우고 태양이 찬란히 빛
날 때나 먹구름이 무겁게 짓누를 때나 상관하지 않
고 이를 펴트리고 전염시키십시오.

순교의 시간에도 낙천주의를 잃지 않았던
콜베 신부님처럼 되십시오. 죽기까지 용감하고 자신

을 온전히 잇을 정도로 관대 하십시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어기는 일이 결코 없게 하고, 둘이지만 하나인 이 계명을 사랑의 힘을 다하여 지키십시오.

951. 스승님께서 마련하신 계획에서 1밀리미터라도 벗어나지 않도록 충실히 규칙을 지키십시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똑 같이 충실 하십시오. 이는 끊임 없이 값진 진주를 찾아내는 정교한 작업입니다.

952. 하느님의 신비가 우리 안에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충실입니다. 충실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느님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만족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53. 작은 일에서 고삐를 조여야 합니다. 보이지 않고, 작고 드러나지 않는 일에 충실하십시오. 충실하게 자매들과 협조하고 내어주며 성실히 시간을 준수하십시오. 지극히 충실한 영혼은 하느님을 미소 짓게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에 충실 하십시오.

954. 하느님께서 많고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혼에게 하시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듣고 또 들으십시오. 그분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대에게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지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그대신 용감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사랑하는 것처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식으로 사랑하고 하느님 식으로 요구하십시오.

그대도 하느님 식으로 응답하십시오.

955.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 것이라면 저는 서두를 수록 좋습니다.

956.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승리했다는 기록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에게 나는 주겠다…”(묵시 2, 17)

957. 하느님의 말씀께서 그대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대는 항상 그분의 충실한 여종, 조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958. 그대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대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목적지까지 도달하고 싶습니다. 그대가 두려움 없이 전진한다면 우리 모두 훨씬 수월하게 도달할 것입니다.

매 순간 사랑으로 응답하십시오.

959. “듣거라, 딸아,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 임금님이 너에게 사로 잡히시리라.”(시편 44,11).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철저한 시간 준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달려가듯 시간을 준수하십시오.

더욱 섬세해 지십시오. 매 순간을 영원한 사랑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섬세함을 지니십시오.

더 많이 침묵하십시오. 쓸데없는 말로 침묵의 분위기를 깨트리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아예 기도 자체가 되십시오.

이런 작은 노력들을 통해 하느님의 신비스런 계획에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960. 나날이 더 충실해지십시오. 무엇보다 마음의 방향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대 영혼을 찾아 오실 때, 오염되지 않은 채, 생명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961. 그대는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게 되더라도 그 뜻을 이루어 드리십시오. “우리는 행복하구나!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고 있다.”(바룩 4,4) 이를 위해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충만하게 사십시오.

962. 충실... 충실...! 오로지 충실할 때만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갈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하나되게 하소서.”(요한 17. 21)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정말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대가 이 사랑을 내어 줄 수 있겠습니까?

963. 하느님의 정상까지 오르십시오. 하느님보다
더 높은 정상은 없습니다. 충실함으로 이 정상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충실할수록 더
높이 오르고, 더 깊은 사랑의 신비에 다다를 수 있습
니다.

964. 수도원은 생명을 낳아주는 어머니와도 같고,
나의 삶을 형제적 사랑으로 풍요롭게 하는 가족과도
같으며, 내가 몸 담고 살아가는 교회이고, 하느님 백
성의 거룩한 집회와도 같습니다. 또한 온 인류의 상
징이기도 합니다. 이 수도원에 충실 하십시오.

965. “별”을 발견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
를 따라가는 것은 더욱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별의 인도를 충실히 따르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966. 예수님, 상처투성인 저를 보십시오! 수 없이 넘어지고, 자주 불충실하였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 십자가 아래서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 저를 충만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모든 것이 완성 될 것입니다.

967. 예수님, 저는 당신을 얼마나 자주 속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로지 당신께 충실하고 싶습니다. 제게 많이 실망하셨습니까? 약속만하고 지키지 않은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전 것은 모두 지워버리고 지금 다시 시작하길 원하십니까? 예, 다시 시작 하렵니다.

968.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합니다. “자아”가 너무 크고, 꾸민 것이 많습니다. 현실로 옮기십시오.

또한 쉽게 타협하고, 삶에 깊이가 없으며, 자신에게 너무 많이 사로 잡혀있습니다. 그 많은 노력

이 헛수고로 돌아가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영성은 우리 교만의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다시 시작하십시오.

969. 충실 하십시오. 그러나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단순하면 할수록 더 충실해 질 것입니다.

970. 하느님께서 그대의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확고하고 굳세고 용감한 응답, 사랑에 찬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응답하는 방법은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대의 응답은 활기차고, 용감하며, 관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대를 보면 하느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단번에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971. 하느님 뜻의 맑은 물을 마시십시오. 그리고 충실함의 물로 형제들의 갈증을 풀어 주십시오.

972. 그대 존재 전체를 사랑합니다. 그대 있는 그

대로, 온전히 사랑합니다. 그대 인생의 여명과 황혼, 그대의 삶과 죽음을 사랑합니다. 나날의 영성체와 휴식, 침묵과 말을 사랑합니다. 그대 안에 간직된 생각을 사랑합니다.

그대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사랑합니다.

973. 약속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더욱 좋은 일입니다. 우리 삶에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우리 행동이 우리가 하는 말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일관성 있고 진실되어야 합니다. 존재의 일치が必要です.

974. 딱 한가지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영혼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원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항하지 않겠다고 말씀 드리십시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선하다고 말씀 드리십시오. 하느님 침묵의 신비

에 충실 하십시오.

975. 영혼은 잠시도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느님의 리듬을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리듬을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심장 박동 수에 정확히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 비참의 붓짐을 짊어지고 사랑을 향해 미소 지으며 계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976.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온순하게 “맡겨 드리는” 일입니다. 동시에 하느님의 활동에 협력하고 그분의 요구 앞에 눈을 뜨고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 맞추기 위해 마음으로 깨어있고, 사랑으로 그를 끌어 안으며 더욱 섬세하게 사랑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977. 조금만 더하면 정상에 다다를 것 같은데... 여느 때보다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남은 시간들 이야말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 안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자취를 남겨 놓습니다. 그대의 충실이 필요합니다.

978.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아름다운 날들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힘든 날도 있고 수월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아름답고도 아름다운 날들입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는 확실한 인장으로 새겨진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979. 하느님 앞에 충실 하십시오. 오직 그분만 생각하십시오. 피조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마십시오. 그대 영혼 안에 계신 하느님의 눈길 아래 행동하십시오.

980.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른다고 빨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침착 하십시오... 침착 하세요! 정말 중요한 시간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시간 만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시간, 충

실의 시간입니다.

981. 황금 빛 찬란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판타지나 낭만주의도 아닙니다. 현실 감각을 지니고 일상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하루 말 없이 침묵하고 일하고, 전례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자신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포기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느님이 계시며 당신 눈길로 영혼을 감싸주시고 꿰뚫으시고 신화(神化)시켜 가십니다.

982. 하느님 같은 용기가 필요 합니다. 나약한 본성에 더 이상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론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983. 하느님과의 만남은 강인한 영혼을 만듭니다. 사랑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작은 영혼도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니다. 그대도 사랑의 영웅이 되어보도록 하십시오.

984. 오늘은 성모님의 날, 불과 사랑의 축제일입니다. 그대를 자유롭게 봉헌하는 이날, 사랑에 마음을 활짝 열고 자유롭게 관대한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충실 하십시오. 항상 충실 하십시오.

985. 행복하십시오! 그러나 행복(felicidad)은 충실(fidelidad) 요구합니다. 같은 글자와 음절로 되어 있는 이 두 단어는 서로 보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실 하십시오. 행복해질 것입니다.

986. 결국 충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그대의 삶이 충실 자체가 되길 바랍니다. 하느님은 충실의 신비 안에서 영혼을 만나 주십니다. 그대는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충실의 증인이 되십시오.

987.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베푸신 사랑의 신비를 충실하고 용감하게 살 수 있도록 성모님께 빛과 힘을 청하십시오.

988. 평범한 어느 하루 역사가 시작됩니다. 역사의 첫 페이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대의 삶에 너무도 중요하고 의미 깊은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더욱 심오하고 차원 높은 페이지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앞으로 쓰여질 이 페이지들에 대해 희망을 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기다리고 공동체도, 우리도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이들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하느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마십시오! 이 충실의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가 하느님의 미소로 마무리 지어지길 바랍니다.

989.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빛과 진리에 대해 질문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대의 삶으로 이에 대한 온전한 답을 주었기 때문
입니다.

990. 하얀 백지를 내어 드리고 그분께 맡기십시
오. 하느님께서 당신의 신비를 그 위에 적어나가게
하십시오. 그대는 오로지 충실하고 관대하십시오. 이
렇게 하여 사람들이 그대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들을
발견하고 또 그 신비들의 주재자이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991. 하느님의 영이 그대 영혼을 차지하고 그대
의 눈을 빛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십니다. 그대가 충
실하다면, 하느님의 신비스런 영께서 삼위일체의 시
선을 그대에게 주시고, 그대 영혼은 사랑으로 넘치
게 될 것입니다.

992. 충실 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대의 인생 길에
뿌려 주시는 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
를 기울이지 말고 늘 깨어 있으십시오.

나라 영원히 지속되는 향기가 되십시오. 사랑과 충실로 농축된 향기가 되십시오.

997. 이번 피정은 관상에 대한 열렬한 갈망을 그대 안에 남겨 놓았습니다. 축성된 그대의 삶에 주님께서 불로 새겨주신 이 영원한 성소에 충실 하십시오.

998. 하느님께서 그대의 영혼 안에 상상도 못할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이 씨앗을 잘 가꾸어 열매 맺게 하십시오.

999. 아, 나의 하느님! 저는 아직도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00. 사랑으로 타오르십시오. 끊임없는 희생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으십시오. 침묵으로 깊은 기도 에 잠기십시오.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모르는 것을 알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은 아무 것

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1001. 발렌시아 거리에 있던 목련나무가 기억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도 그 근처에 이르면 아주 멀리서도 목련 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련 꽃이 왕성한 생명력으로 뿜어내는 향기였습니다. 자기 안에 향기를 간직하고 있었기에 온 사방을 그 강렬한 향기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발렌시아 목련 나무의 기억은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목련 나무처럼 되어 그리스도의 신비스런 향기를 널리 퍼뜨릴 수 있다면, 그 향기 닿는 곳마다 신선한 새 공기, 새 생명, 새 기쁨으로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